

분단·반공내용 오히려 강화

민족공동체 강조보다 적개심 부추기는게 주된 흐름

년부터 국민학교 1·2·3학
배울 새 교과서의 통일 및
관련 부분이 북한을 대결상
삼아 경쟁·적대관계를 부
키고 있는 지금의 교과서와
한 내용과 시각으로 기술된
비해 분량은 크게 늘어나 국
교 저학년에서 분단·반공교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부는 5차 교육과정 개편계
따라 지난 3월 '국민학교 1
·3학년 1학기분 실험용 교과
전국 42개 학교에 시험보
내년부터 국민학교 교과서로
채택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교과서들은 기존 교
의 통일, 6·25, 북한관련 내
거의 그대로 수록한데다 많
분량의 같은 소재와 내용을
태 앞으로 있을 통일논의의
과 남북한 관계개선 등에
비해 국민학교 실험교과 내용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
었다.
이 교과서는 1학년 <바른생활>
'하나인 우리나라'란 단원을
통일 지향의 관점을 시사하
있으나 보조교재인 <생활의
잡지>에는 '반공전시회'란 단원
넣어 우리의 대북한 우위를
노출함으로써 국민학교 1학년 부
현재의 교과서보다 강화된 반
교육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 2, 3학년 교과서는 '북한의
주생활' 햇빛과 자유'땅굴' 등
소재로 한 14편의 6·25 및
한관련 글이 실려 있고 그 내
도 민족공동체 의식을 강조하
보다는 북한에 대한 적개심·
경쟁심을 조장하기 위한 것이 압
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실제로 1학년 '반공전시회' 단
은 북한 전시장을 "팽과 과자
맛이 없어 보였습니다. 옷이
신도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첩들이 가져온 물건도 보았습
다. 우리들을 해치려고 가져온
들입니다"라고 표현, 대북한
위를 강조하고 북한에 대한 적
심을 고양하고 있으며 또 2학
<바른생활> '6·25' 단원은 "6
25는 북한 공산군이 일으킨 전
입니다. 북한 공산군은 나쁜
을 많이 하였습니다. ...지금도
한 공산군은 전쟁을 일으키려
합니다"라고 기술하고 3학년
<도덕> '6·25 이야기' 단원은
북한 공산당은 대한민국 사람들
그들과는 달리, 자유스럽게
자의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을 싫어했다. 그래서 그들은
한민국도 공산국가로 만들려고
침을 한 것이지"라고 적고 있
또 3학년 <생활의 길잡이>

꽃집 할아버지 단원에는 전투

중에 공산군이 거짓으로 항복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실어 같이 살지 못할
속속으로, 또 3학년 국어 <읽기>
'태극기' 단원에서는 "공산군들은
동네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붙잡
아 어디론지 끌고 갔습니다. 여
자들에게도 길을 뚫고 포탄 나르

북한생활 굶주리고 그늘진 것으로만 소개
3·1운동·외국침략항쟁은 고작 5편에 그쳐
항일 무장독립운동·4월혁명 전혀 안실어
6·25 이야기 8편으로 절반이상이나 차지

'반공전시회' 단원 넣어 남한 우위성만 강조 통일논의등 남북관계 변화 대비 개정 시급

는 일까지 마구 시켰습니다. 곡
식마저 빼앗아 가서 마을 사람들
은 굶주리게 되었습니다"라고 기
술하고 있다.

이같은 통일·북한관련 단원들
을 내용별로 보면 6·25 이야기
가 8편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북한의 가족생활을 굶
주리고 있거나 그늘진 것으로 표
현한 내용 2편, 반공전시회, 땅
굴, 귀순가족, 이산가족 등의 문
제를 다룬 것 등이 각 1편씩이

다.
이에 비해서 현재의 1~3학년
1학기 교과서는 2학년 <바른생
활>에 '귀순간첩 이야기', 3학년
<국어>에 '태극기', 3학년 <도덕>
에 '6·25 이야기' '하얀 까마귀'
등이 실려 있어 통일·북한관련
단원이 5편이며 현재의 교과서
내용 중 '태극기' '6·25 이야기'
등은 문장이나 글의 형태만을 바
꾸어 새교과서에 그대로 실었다.
이러한 분단교육의 강화에 대

해 문교부의 교과서 편수담당자
는 "실험용 교과서의 내용을 바
꿀 필요를 크게 느끼지 않아 교
과내용의 대폭적인 개정은 계획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3·1운동이나 외침에 대한
항쟁 등은 1~3학년 전체 교과서
에서 유관순, 김구, 진주성싸움 등
5편이며 일제하 무장 독립운동,
4월 혁명 등은 교과서에 전혀 소
개되지 않고 있다.